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19개 제약바이오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를 발족,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제약바이오협회 AI 기반 R&D 디지털 전환 앞장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 발족  
초대 위원장 동아ST 한태동 상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19개 제약바이오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를 발족,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는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R&D 현안 논의, AI신약개발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 공유,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 대정부 정책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AI신약개발 경진대회, AI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워크숍 등 2023년도 AI신약개발지원센터 사업 추진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 등의 유출 걱정 없이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연구협력모델 구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동아ST 한태동 상무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태동 위원장은 "AI신약개발 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한 산-학-연 협력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연구체계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며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협업체계가 구축되면 저비용 고효율의 신약개발 R&D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제도 도입

직원 80%에 부여... 5년간 진행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한다. 계열사 내에서 롯데그룹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사업 초기 급성장과 함께 육성될 현재의 직원들은 미래의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주축이 될 것이고, 인수합병(M&A), 사업모델 구축 등 회사 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향후 국내 바이오 인적자원 시장에서 가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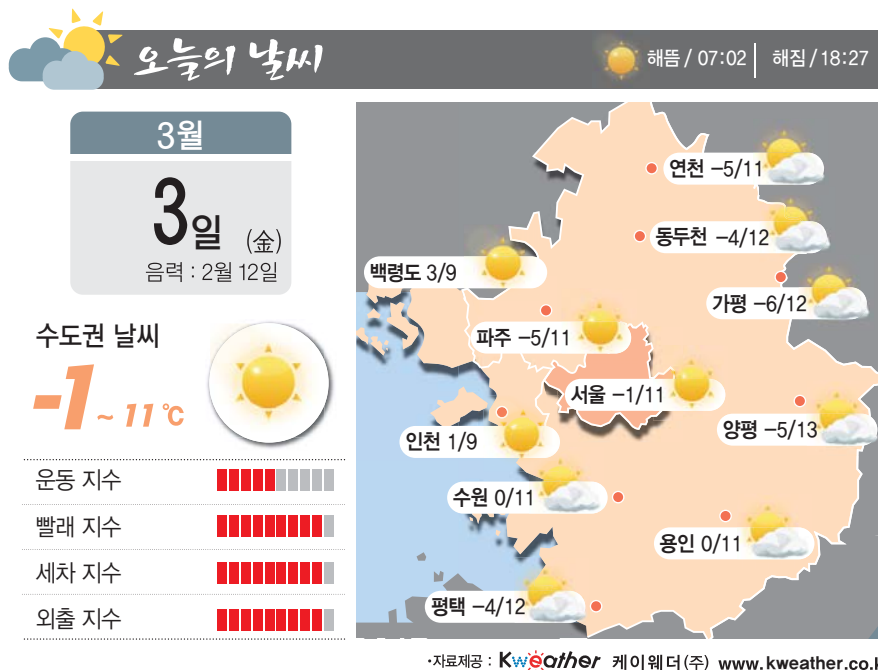
이는 재직 중인 우수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로열티 강화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스톡옵션제도는 매년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 전 직원 중 약 80% 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여하게 된다. 사업 초기라는 취지에 맞춰 향후 5년간 진행되며, 매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6월 법인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1월 1일 BMS 미국 시리큐스 공장 인수를 완료했으며 2034년까지 국내에 총 36만리터 규모의 메가플랜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글로벌 톱 10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의 성장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세경 기자



# 삼바, 화이자 2410억 CMO 계약 올해 누적 수주 '13조+ α' 전망

2029년 12월31일까지 계약  
지난해부터 대형 수주 줄이어  
34종 이상 CMO 계약 논의 중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는 처음으로 매출 3조원 시대를 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초부터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의약품 위탁생산(CMO)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1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2410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CMO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개별 매출의 15.37%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계약기간 종료일은 생산 일정 등 계약조건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1540억원 규모 CMO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노바티스와 1005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도 4000억원이 넘는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맺으며 지난해 수주 금액은 1조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누적 수주 금액은 95억 달러(약 12조46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0억 달러(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건수는 CMO 74건, 위탁개발(CDO) 101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착공 23개월만에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24만L)을 갖춘 4공장 부분 가동을 시작해 위탁생산능력을 강화했다. 4공장은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 8개사와 11종 제품에 대해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추가로 26개 이상 잠재 고객사와 34종 이상의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 확대와 공장 가동을 상으로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매출 3조13억원을 기록, 연간 매출액 3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영업이익은 9836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셀트리온, 송도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시운전 완료

# 바이오·케미컬 인재 결집... 신약 모달리티 확장 (치료접근법)

파일럿 랩 등 최신 연구설비 갖춰  
2분기 내 연구원 입주 마무리 계획

셀트리온은 2일 송도에 위치한 신규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시운전을 완료하고 최종 밸리데이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본격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연구개발(R&D)-공정개발-임상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기 위한 복합 대규모 연구센터 신축을 결정하고, 착공 후 약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의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전경. /셀트리온

해당 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300명 이상의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케미컬) 연구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센터 내에는 비임상 원료 의약품(DS) 생산이 가능한 파일럿 랩을 비롯해 비임상 완제의약품(DP) 생산을 위한 충전 설비 등 최신 연구 설비를 갖추고 있어 연구센터 내에서 임상 진입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이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연구센터 내 연구원 입주를 2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이오 및 케미컬 의약품 연구인력의 집중화를 통해 새로운 신약 모달리티(Modality·치료접근법) 및 약물전달 기술로 연구 분야를 꾸준히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 LG생진 '비온드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출시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 함유

LG생활건강의 클린 뷰티 브랜드 비온드가 성분부터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피부에는 순하고, 지구는 깨끗하게'를 모토로 한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엔젤 아쿠아 크림 2종은 청정 지역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과 릴리프 시카 콤플렉스를 함유한 포몰라가 피부에 수분감과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

'엔젤 아쿠아 수분 진정 크림'은 수분감 있게 발리는 젤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24시간 동안 피부 겉보습과 속보습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엔젤 아쿠아

보습 장벽 크림'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로 탄력 있는 사용감과 부드럽고 매끄러운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피부에 전달된 보습력이 깊은 곳에서도 100시간 동안 유지되며 깨끗하고 건강한 수분과 영양 가득한 유분이 피부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해 한국비건인증원의 공식 인증을 받은 비건 처방 제품. 또한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적용한 '재생 100%(매스 밸런스 기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다.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페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업그레이드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더욱 프로페셔널한 피부 관리를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슈퍼콜라겐'을 출시한다.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은 국내 기능성 콜라겐 판매 1위 제품으로 누적 판매 2억병을 기록하는 등 13년 동안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제품이다.

업그레이드 출시한 이번 슈퍼콜라겐은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국내 최대 피부 지표 개선을 인정받았다. 기존 대비 증량된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1200mg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오틴 3000%, 나이아신 100%를 함유해 피부 속부터 밀도 있게 채우고 전신 피부의 속보습 관리까지 도와준다.

/이세경 기자